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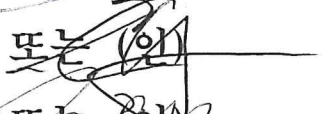




2026. 6. 24.

수신: 의장

제목: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강북횡단선  
종로구 구간 내 (가칭) 상명대역 및 (가칭) 평창역 반영  
촉구 결의안

위의 결의안을 지방자치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발의합니다.

첨부: 결의안 1부. 끝.

발 의 자:	정 재 호	의원	서명 또는 (인)	
	라 도 균	의원	서명 또는 (인)	
	이 광 규	의원	서명 또는 (인)	
	이 시 훈	의원	서명 또는 (인)	
	여 봉 무	의원	서명 또는 (인)	
	김 하 영	의원	서명 또는 (인)	
	이 응 주	의원	서명 또는 (인)	
	박 희 연	의원	서명 또는 (인)	
	김 종 보	의원	서명 또는 (인)	
	이 미 자	의원	서명 또는 (인)	
	이 룬 구	의원	서명 또는 (인)	

#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강북횡단선 종로구 구간 내 (가칭) 상명대역 및 (가칭) 평창역 반영 촉구 결의안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6. 6. 24.  
발의자:  
정재호·김하영·라도균·이시훈·이광규·  
김종보·이미자·이용주·박희연·여봉무·  
이륜구 의원

## 1. 주문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강북횡단선 종로구 구간 내 상명대학교 인근 및 평창동 일대 정거장 설치 방안을 적극 반영하고, 정거장 축소 또는 조정과 관련한 검토 기준과 지역별 영향 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종로구·종로구의회 및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별지와 같이 채택함.

## 2. 제안 이유

- 서울특별시는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통하여 철도교통 취약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교통격차를 완화하고자 하고 있음.
- 강북횡단선은 목동역에서 청량리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25.79km의 주요 동서축 도시철도 노선으로서 서울의 동북·서북·서남권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사업성 보완을 위하여 정거장 2개소

축소 방침을 밝힌 반면, 축소 대상 정거장과 구체적인 조정 기준은 공개되지 않아 종로구 북부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부암동과 평창동은 철도 접근성이 낮은 지역으로, 부암동은 주민 체감 철도 접근시간이 20분에서 30분, 평창동은 4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이 일대는 북한산과 북악산 자락의 지형적 특성 및 도로 여건으로 인하여 기존 철도역 접근이 어렵고, 버스와 승용차 의존도가 높은 지역임.
- 상명대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 주거지역 및 문화·관광 기능이 함께 형성된 종로구 북부 지역의 교통수요는 주민등록인구뿐 아니라 생활인구, 통근·통학 수요, 교육·문화·관광 수요 및 방문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강북횡단선의 사업성 확보는 필요하나, 사업성 보완이 철도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정거장 이용 가능성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됨. 이에 강북횡단선이 종로구 북부 지역의 실질적인 교통격차 완화와 주민 이동 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상명대학교 인근 및 평창동 일대 정거장 설치 방안을 적극 반영하도록 촉구하고자 함.

### 3. 결의문(안): 따로 붙임

### 4. 이송처

서울특별시(시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종로구(구청장)  
국토교통부장관

##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강북횡단선 종로구 구간 내 (가칭) 상명대역 및 (가칭) 평창역 반영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는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철도교통 취약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교통격차를 완화하고자 하고 있다. 서울시는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하여 강북횡단선, 난곡선, 서남선, 서부선, 서부선 남부연장 및 신림선 북부연장 등 6개 노선의 구축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강북횡단선은 목동역에서 청량리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25.79km의 도시철도 노선으로, 서울의 동북·서북·서남권을 연결하는 주요 동서축 교통망이다. 서울시는 강북횡단선의 선형 개선과 정거장 조정을 통하여 사업성을 보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정거장 2개소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 공개자료에는 축소 대상 정거장과 구체적인 조정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종로구 북부 주민들은 강북횡단선의 노선 및 정거장 계획이 지역의 교통 여건과 주민의 실제 이동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의 민관 융합 빅데이터 기반 철도 접근성 분석에 따르면, 부암동은 철도 접근시간이 15분 이상 20분 미만인 지역으로, 평창동은 20분 이상이 소요되는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다만 이는 행정동 평균을 기준으로 한 분석 결과로, 실제 주민이 주거지에서 철도역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산지 지형, 굴곡진 도로, 버스 배차간격, 환승 및 보행 여건 등에 따라 접근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실제 체감 접근시간은 부암동의 경우 약 20분에서 30분, 평창동의 경우 40분 이상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암동과 평창동 일대는 철도교통 접근성이 낮고 지형 및 도로 여건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누적된 지역이다. 또한 상명대학교를 비롯한 교육

시설, 주거지역 및 문화·관광 기능이 함께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이 일대의 교통 수요는 주민등록인구뿐 아니라 생활인구, 통근·통학 수요 및 방문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강북횡단선의 사업성 확보는 필요하다. 그러나 사업성 보완이 철도 접근 취약지역 주민의 정거장 이용 가능성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종로구 북부 지역을 통과하는 강북횡단선에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정거장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는다면, 교통격차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정책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기 어렵다.

이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은 종로구 북부 주민의 철도교통 접근성 개선과 지역 간 교통격차 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는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및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절차 전 과정에서 강북횡단선 종로구 구간에 (가칭) 상명대역 및 (가칭) 평창역을 반드시 설치하라.

하나, 서울특별시는 강북횡단선의 노선 및 정거장 계획을 검토할 때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정거장 설치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철도 접근 취약성, 현재와 장래의 교통수요, 주민등록인구와 생활인구, 통근·통학 수요, 교육·문화·관광 수요, 지형여건 및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라.

하나, 서울특별시는 강북횡단선 정거장 축소 또는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경우 축소 대상, 검토 기준, 지역별 영향 분석 결과 및 대안 마련 내용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종로구·종로구의회 및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하라.

2026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